**로마서 9-12장**

**8/28 월요일**

**롬 9:4-8, 11-16**
**4** 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.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봉사와 약속들이 있습니다.
**5** 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,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.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. 아멘.
**6** 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며,
**7** 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오직 “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.”라고 하셨는데,
**8** 그것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며,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.
**11** 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(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),
**12** 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“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.”라고 하셨으니,
**13** 성경에 “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, 에서는 미워하였다.”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.
**14** 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?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!
**15** 하나님께서 모세에게 “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,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.”라고 하셨습니다.
**16** 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.

**8/29 화요일**

**롬 9:20-24, 29-33**
**20** 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?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,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
**21** 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,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?
**22** 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,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?
**23** 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?
**24** 이 그릇은 우리,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.
**29** 또 이사야가 전에 말했던 대로입니다. “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, 우리는 벌써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.”
**30** 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,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습니다.
**31** 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.
**32** 왜 그렇게 되었습니까?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.
**33** 이것은 성경에 “보아라,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,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.”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.

**롬 10:1-3**
**1** 형제님들,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.
**2** 나는 그들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.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,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.
**3** 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,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**8/****30 수요일**

**롬 10:4-13**
**4** 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.
**5** 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, “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.”라고 기록하였습니다.
**6** 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. “그대는 마음속으로 ‘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?’라고 하지 마십시오.”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.
**7** 혹은 이렇게 말합니다. “ ‘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?’라고 하지도 마십시오.”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.
**8** 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? “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,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.”라고 하였습니다.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.
**9** 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,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.
**10** 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,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.
**11** 성경은 “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.”라고 말합니다.
**12** 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,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,
**13** “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.”

**8/31 목요일**

**롬 11:2-5, 16-18, 29, 32, 36**
**2** 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?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.
**3** “주님, 그들이 주님의 신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. 그리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, 그들이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.”
**4** 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? “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.”라고 하셨습니다.
**5** 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.
**16** 드려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,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.
**17** 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,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,
**18** 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. 자랑한다 해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, 뿌리가 그대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
**29** 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부름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**32** 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.
**36** 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, 주님을 통하여 있고,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

**9/1 토요일**

1. **롬 12:1-8**
**1** 그러므로 형제님들,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.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.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.
**2** 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.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,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.
**3** 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.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,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.
**4** 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,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.
**5** 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,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.
**6** 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이 신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언하십시오.
**7** 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,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,
**8** 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.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,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,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.

**9/2 토요일**

1. **롬 12:9-18**
**9** 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.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,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.
**10** 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,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.
**11** 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.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.
**12** 소망 가운데 기뻐하고, 환난 가운데 견디며,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.
**13** 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,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.
**14** 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.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.
**15** 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,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.
**16** 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,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,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.
**17** 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,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.
**18** 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,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.
2. **9/3 주일**
3. **창 4:26**
**26** 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,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.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.
4. **시 50:15**
**15** 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. 내가 너를 건져 내리니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.”
5. **시 81:7, 10**
**7** 곤경 속에서 네가 부르짖기에 나 너를 건져 주었고 천둥 치는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므리바 샘에서 너를 시험하였다. 셀라
**10** 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. 네 입을 크게 벌려라. 내가 채워 주리라.
6. **시 86:5**
**5** 오, 주님! 주님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
7. **시 116:12-13**
**12** 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혜택에 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?
**13** 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
8. **시 145:18**
**18** 여호와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, 그분을 참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.
9. **사 12:3-4**
**3** 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으리라.
**4** 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. “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!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.
10. **사 55:6**
**6** 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.
11. **애 3:55-56**
**55** “오, 여호와님!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.
**56** 주님은 제 음성을 들으셨으니 제 호흡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.
12. **행 2:21**
**21** 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.’라고 말씀하셨습니다.’

**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**

1. **1단계-순차적 연구**로마서 4:1-25; *로마서 라이프 스타디*, 37-38장

**2단계-주제별 연구**Crucial Point: The Love of Our “Abba Father”**Assigned Reading:** *Life-study of Romans,* msgs. 20